

# 「韓國의 圖書館」發刊有感

朴 熙 永  
(本會統計分科委員會 委員長)

韓國圖書館協會가 새로운 氣運으로 再發足한지도 於焉 滿10年이 지났다. 10年이란 참으로 짧은 歲月이다. 우리의 歷史가 5千年이라고 한다. 5千年의 悠久한 歷史속에서의 10年이란 더욱 말할수 없이 짧은 歲月인 것이다.

새로운 圖書館學이 우리나라에 導入된지는 不過 8年 밖에는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間 韓國圖書館協會는 그리고 韓國의 圖書館人들은 다른나라가 오랜 時日을 두고 研究하고 發展케 한 圖書館學을 이 몇年 사이에 火急히 自己化하려고 무진 努力해 왔다. 그리하여 努力한 보람으로 우리들은 圖書館專門用語를 간추리고 分類表라던가 目錄規則等 圖書館이 가져야 할 要件들을 가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부터는 急히 만들어진 이 것들을 더욱 研究하고 가다듬고 發育토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韓國圖書館協會가 再發足한 以後 每年 부끄러운 우리 圖書館界의 그대로의 참모습은 거울에 비추어 보기 爲하여 그리고 그 부끄러운 그대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기 나은 모습으로 發展하기 爲하여 統計해 왔다.

우리 圖書館界가 眞正 渴望하던 圖書館法과 아울러 同法施行令이 公布된 오늘날 그法과 令이 우리들에게는 滿足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등에 지고 서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그리고 어떤面을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져 今年에도 昨年에 이어 1965年 3月末日 現在의 統計인 韓國의 圖書館을 다시 編하여 發刊하면서 그其 10年間의 우리의 자라온 그리고 變換 모습을 훑어 보고자 한다.

于先 今年度統計로서 各館種別로 본 比例는 다음과 같다.

種 別	館 數	職員數	閱覽席數	藏書數
公 共	3%	13%	7%	10%
大 學	7%	27%	21%	55%
特 殊	4%	15%	2%	8%
學 校	86%	45%	70%	27%
合 計	100%	100%	100%	100%

다음은 十年間의 增加한 모습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圖書館數

館種	年度	1955年	1965年	增 加
公 共		12	49	4.08倍
大 學		43	109	2.53倍
特 殊		15	71	4.73倍
學 校	(1962)	149	1,422	9.54倍
計		70	1,651	23.58倍

職員數

館種	年度	1955年	1965年	增 加
公 共		113	412	3.64倍
大 學		207	838	4.04倍
特 殊		103	472	4.58倍
學 校	(1962)	335	1,424	4.25倍
計		423	3,146	7.43倍

閱覽座席數

館種	年度	1955年	1965年	增 加
公 共		1,784	8,909	4.99倍
大 學		4,194	28,231	6.73倍
特 殊		526	2,721	5.17倍
學 校	(1962)	18,065	94,146	5.21倍
計		6,504	134,007	20.69倍

藏書數

館種	年度	1955年	1965年	增 加
公 共		476,844	694,515	1.45倍
大 學		1,297,034	3,951,379	3.04倍
特 殊		187,374	623,850	3.32倍
學 校	(1962)	403,528	1,944,737	4.81倍
計		1,961,252	7,214,481	3.67倍

10年間의 圖書館數, 職員數, 座席數, 藏書數의 增加된 모습을 한表로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

		館數	職員數	座席數	藏書數
公 共 大 學 特 殊 學 校	公 共	4.08倍	3.64倍	4.99倍	1.45倍
	大 學	2.53倍	4.04倍	6.73倍	3.04倍
	特 殊	4.73倍	4.58倍	5.17倍	3.32倍
	學 校	9.54倍	4.25倍	5.21倍	4.81倍
計		23.58倍	7.43倍	20.69倍	3.67倍

### 公共圖書館

어떤 나라를 莫論하고 그 나라의 圖書館事業을 云謂 할 때에는 公共圖書館事業만을 가지고 論하게 되는 것 인바 公共圖書館의 모습은 곧 그 나라 圖書館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모습을 볼 때 甚히 부끄러움을 禁할수 없다. 2,800萬名 人口에 不過 49個館의 公共圖書館을 가지고 있음은 寒心스러운 모습이다. 이는 57萬名이 한個의 公共圖書館에 매달려 이것을 利用하고자 비비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더욱 施設과 藏書를 볼 때 몇個의 公共圖書館을 除外하고는 極히 貧弱한 圖書館까지도 한館으로 計算하여 57萬名이란 많은 國民을 相對로 奉仕하고 있는 것이다. 座席數로 볼때 全公共圖書館의 座席을 合하여 8,900席이라는바 座席하나를 가지고 3,100名이 서로 그자리에 앉을려고 座席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現實이며 이것이 또한 10年間 增加한 結果가 이렇게 밖에는 못되었던 것이다.

公共圖書館의 10年間 變換한 모습을 살핀다면 于先 圖書館數에 있어서 1655年의 12個館이 49個館으로 增加하였으니 約4倍가 增加하였고 閱覽座席數는 1955年의 1,784席이 約5倍를 增加하여 8,909席이 되었고 藏書數에 있어서는 1955年의 476,844冊이 約1.4倍를 增加하여 694,515冊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公共圖書館의 館數와 閱覽座席의 增加에 比하면 藏書數의 增加가 몹시 劣勢였음을 알수 있다.

市道別로 公共圖書館의 分布狀況을 본다면 京畿道가 21個館으로 首位로서 他道에 比하여 越等하게 많은 43%를 차지하고 있고 餘他的 市道는 1個館乃至 많아야 4個館을 가지고 있어 京畿道를 除外한 各市道의 公共圖書館은 貧弱한 것이다. 그러나 藏書數에 있어서는 京畿道의 21個館을 合친 藏書數와 釜山의 2個館을 合친 藏書數가 같은 5萬冊線에 있는 것으로 볼때 京畿道에는 圖書館 數잔만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한편 서울特別市の 藏書數가 全 公共圖書館藏書數의 約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또한 各道의 藏書의 貧弱相을 알수 있는 것이다.

서울特別市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首都임으로 모든 施設이 어느 道나 市보다도 比較的 갖추어져 있는 代表할수 있는 都市이므로 서울 만을 좀 더 分析하여 본다면 圖書館이 4個館이 있다. 이中에는 全公共圖書館藏書의 半을 차지 하고 있는 全國을 奉仕對象으로 하는 國立中央圖書館이 包含되어 統計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360萬名의 서울 人口로서는 90萬名이 한個 圖書館을 利用해야하고 閱覽座席에 있어서는 1,100名이 한個의 座席을 利用해야 하는 것이다.

### 大學圖書館

우리나라 圖書館들을 館種別로 볼때 大學圖書館이 內容이나 外貌에 있어서 比較的 發展을 해 왔다고 볼수 있다. 圖書館들 中에서 一方으로 發展한 大學圖書館이 그렇게 된 原因의 하나로서 大學設置基準令의 公布와 이것으로서의 每年 實施된 大學實態調査에 크게 힘 입은바가 크다.

大學圖書館의 館數는 大學의 數와 同一한 것이므로 數交를 論할수 없으나 1955年의 43個館이 109個館으로 2倍半이 增加하였다. 藏書數에 있어서 1955年의 1,297,034冊이 3,951,379冊으로 3倍가 增加하였는데 全大學圖書館의 奉仕對象者數가 總 161,318名이므로 1名當約 24冊이 割當되는 것이다. 閱覽座席數는 1955年의 4,194席이 28,231席으로 約6.7倍가 增加하였는데 總奉仕對象者數로 볼때 閱覽座席 한座席을 6名이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圖書館建物에 있어서는 아직도 獨立된 建物을 使用하고 있는 大學圖書館은 約35%밖에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5%는 다른 建物에 附設되어 있고 延坪數를 볼때 對象者 1名當 約0.23坪이 配當되고 있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으로서 갖추어 있어야 할 施設의 하나인 參考室과 定刊室이 아울러 50%밖에는 施設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實情인 것이다.

### 學校圖書館

韓國圖書館協會가 1962년부터 學校圖書館에 對한 統計를 하였다. 그러므로 그 以前에는 學校圖書館이 統計할만한 것이 못되었던 것이다.

各市道別로 본 各級 學校數와 學校圖書館數 및 學校圖書館의 施設을 %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次面參照) 全國民學校의 圖書館數를 學校數에 比하여 본다면 15% 밖에는 施設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市道別로 본다면 慶南이 가장 優勢하여 55%의 國民學校가 圖書館을 가추고 있고 全國의 國民學校圖書館 數와의 比例에 있어서는 56%를 차지하고 있다.

國民學校

市道別	1964年 4月 學校數	1965年 3月 圖書館數	%
서울	152	28	18%
釜山	74	20	27%
京畿	561	5	0.9%
江原	488	33	6%
忠北	309	9	2%
忠南	499	14	2%
慶北	855	55	6%
慶南	769	424	55%
全北	455	36	7%
全南	750	127	16%
濟州	92	1	1%
合計	5,004	752	15%

中學校

市道別	學校數	圖書館數	%
서울	111	3	2%
釜山	46	28	60%
京畿	140	9	6%
江原	80	5	6%
忠北	61	18	29%
忠南	119	34	28%
慶北	188	43	22%
慶南	164	60	36%
全北	104	11	10%
全南	123	6	4%
濟州	29	6	20%
合計	1,165	223	19%

高等學校

市道別	學校數	圖書館數	%
서울	114	92	80%
釜山	40	16	40%
京畿	88	40	45%
江原	45	31	69%
忠北	35	24	68%
忠南	64	48	75%
慶北	96	63	65%
慶南	71	54	76%
全北	58	37	63%
全南	63	29	46%
濟州	18	13	72%
合計	692	447	64%

全國中學校의 圖書館數를 學校數에 比하여 본다면 19%밖에는 施設이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市道別로

본다면 釜山이 가장 優勢하여 60%의 中學校가 圖書館을 가추고 있고 全國의 中學校圖書館數와의 比例에 있어서는 慶南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全國高等學校의 圖書館數를 學校數에 比하여 본다면 64%가 施設이 되어 있어 各級 學校中에서 가장 施設이 많이 되어 있다. 市道別로 본다면 서울이 가장 優勢하여 80%의 高等學校가 圖書館을 가추고 있고 全國의 高等學校圖書館數와의 比例에 있어서도 서울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合計

市道別	學校數	圖書館數	%
서울	377	123	32%
釜山	160	64	40%
京畿	789	54	6%
江原	613	69	11%
忠北	405	51	12%
忠南	682	96	14%
慶北	1,139	161	14%
慶南	1,004	538	53%
全北	617	84	13%
全南	936	162	17%
濟州	139	20	14%
合計	6,861	1,422	20%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를 합친 學校圖書館數를 學校數에 比하여 본다면 不過 20%밖에는 施設이 되어 있지 않다. 市道別로 본다면 慶南이 各級學校가 53%의 圖書館을 施設하고 있어 가장 優勢하며 圖書館數에 있어서도 慶南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特殊圖書館

特殊圖書館의 數는 1955年의 15館에 比하여 4.7倍 가되는 71個館으로 增加하였다. 特殊圖書館에는 官廳, 會社, 銀行, 軍機關, 學術團體等的 機關에서 業務遂行과 事業發展을 爲한 研究調査施設인 圖書室의 必要性을 漸次 認識하여 施設하는곳이 增加하여 가고 있다. 各市道別로 본다면 서울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22%가 獨立된 建物을 가지고 있다.

以上으로 簡單히 「韓國의 圖書館」 1965年 版을 編輯發刊하면서 이 冊子에 나타난 그 間의 韓國圖書館界가 자라고 變換 모습과 아울러 現在의 우리의 모습을 더듬어 보았다. 우리의 이 모습을 萬一 다른나라들의 그것과 比하여 본다면 그 差가 懸隔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없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참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生活을

(14面に繼續)

利用하려는 徵求를 喪失하게 하는등의 일은 적어도 眞理探究를 生活信條로 하여야만 할 大學社會에서는 最少限으로 抑制되고 改善 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教育을 통한 社會改造와 改善이라는 現時點에서 본다면 오늘날 大學圖書館이 處하고 있는 使命이 야말로 實로 重大大한 것이다.

單科大學인 경우 各科에서 選拔된 委員으로서 綜合大學인 경우 各大學 또는 學問 系列別로(人文系, 社會系, 自然系) 選拔된 委員으로서 學長, 總長을 中心으로 運營委員會가 構成되어 여기에서 事業計劃에 對한 實質的, 教育的인 論議가 있어야만 하며 決定된 모든 事項이 實務者로 하여금 運營과 管理面에 反映되고 執行되어 나아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圖書選定은 原則으로 教授 學生들로 부터 要求되는 List 를 基準으로 하여 採擇되어야 할 것이며 收書過程에 있어서도 一般事務職員(庶務, 會計, 經理係) 아닌 圖書館人에게 專擔시키는 制度上的 體制確立과 責任者인 學長, 總長으로서의 關心과 調整 및 改善策이 併行하여야만 할 것이다.

現在까지의 우리나라 大學發達史를 살펴 보았을 때 外的인 施設이라든가 形式的인 量的發達로서 過度하게 肥大하였거나 肥大해 가려는 過程에 處해 있음은 自他가 共認하고 있는 點인 것이다.

어느 大學의 경우는 外的인 發展을 必要로 하는곳도 있겠으나 一般的으로 時急을 要하는 問題는 內的인 向上發展 卽 實用的 實質的인 面에서 運營되고 管理되어야 할 問題에 着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끔 있었다고 들려오는 一方的인 放任이나 無關心 또는 非協調的인 環境에서는 우리들이 다같이 期待하고 있는 圖書館의 正常化란 한갓 空想과 口實에 不過할 것이다.

研究活動의 資料集散地가 곧 圖書館이요, 모든 問題解決의 供給源이 곧 圖書館이요, 高適한 人間陶冶와 品性涵養의 보급자리가 곧 圖書館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大學教育의 綜合的이고도 生産的인 心臟部로서의 役割을 圖書館이 擔當하여야만 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社會의 口號와도 같이 외치고 있는 教育自治制는 韓國的인 口號일 뿐만 아니라 時代的 世界的인 口號인 同時에 우리들의 切實한 生活信念이며 社會理念의 部分的인 表現인 것이다.

어느나라 어느 民族史를 살펴 보아도 自主的인 政治活動이며 自立的인 經濟活動도 力動的인 教育活動에 依해서 만이 可能하였음을 再三 認識 하여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提示된 現實이란 모든 것이 하나

의 宿題인 同時에 教育的인 課題들인 것이다.

이것을 最短期日內에 最少限의 投資로서 最大限의 極致에 到達시켜 보려는 韓國的인 努力은 마침내 企業的인 分野에만 投資하기에 앞서 教育投資에 集中함으로써 實質的인 實効를 얻을수 있으며 모든 難題를 集大成 할수 있으리라고 確信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先行하고 重點的으로 다루어져야 할 問題는 小規模의 投資로서 眞正으로 最大多數人의 벗이 되고 삶의 燈불이 될수 있는 것은 大學圖書館에 對한 投資인 것이다.

大學教育은 眞理探究와 아울러 理想的인 指導者 養成을 그 本來의 使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社會가 어지럽고 家庭이 貧寒하여 彷徨과 不安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에게 한가닥의 期待와 希望을 가질수 있도록 作用하는것은 곧 學校라는 安息處요 教育이라는 힘일 것이다.

이것마저 그들에게 情緒的으로 慰安하고 思索 할수 있는 場所로서 提供되지 못한다면 民族的으로 커다란 損失을 免치 못할 것이며 國家的으로도 重大한 問題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偉大한 指導者며 優秀한 技術者 또는 實業家등 모든 人物들이 學校라는 곳에서 思索과 研究와 努力의 過程을 밟고 社會에 進出하게 되는것을 생각할때 綜合的이고 直接的인 研究資料의 供給源으로서의 圖書館施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그 얼마나 높은 것이며 學校施設中에서도 秋毫도 例外的으로 取投할수 없는 施設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의 굳건한 土臺와 民族文化의 再建은 教育에 對한 投資로 부터 始作되며 이 投資에 依한 理想的인 生産은 오로지 圖書館의 正常化에 依하여 左右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筆者 忠南大學校 教授)

☆ ☆ ☆

(20面에 繼續)

營爲하고 있는 우리社會가 만드려 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 努力하여 남과 같아지도록 해야 하고 生活에 파고 드러가서 우리社會가 必要로 하는 圖書館으로 자라도록 努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끝